현불 논단

교육, 불교의 미래

석길암 교수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젊은 출 · 재가자 찾기 어려워
코로나에 '청년 감소' 도외시
저출산 · 고령화 탓만 해서야

조선 초 · 중기 불교 최대 위기
새로운 경제 · 포교 방법 구현
서산 대사, 교육 체계 정비해

위기를 기회를 만든 건 '교육'
교육 통해 젊은 불자 양성해야

젊은 출가자와 젊은 불자를 찾기가 힘들다는 아우성이 불교계의 화두가 된 지 벌써 오래이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원인을 불문하고 그러한 위기상황은 최근 들어 더욱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눈앞에 그리고 바로 지금 닥쳐있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의 괴로움이기에, 우리 불교계도 역시 그 대응에만 골몰하고 있다. 거대하고 갑작스럽게 전면적으로 닥친 위기 상황에서 다른 일들에 대한 생각은 논외가 되고 마는 것이 코로나 시대의 또 다른 우울한 현실이다. 그 우울함 때문인지는 몰라도 근 20여 년 동안 지속적인 과제였던 청년 불자, 청년 출가자의 감소에 대한 위기의식은 어느 순간 도외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대학에 있고 게다가 입시철에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치다 보니, 필자에게 가장 강렬하게 느껴지는 위기 중의 하나는 코로나19보다는 오히려 인구절벽이 초래한 위기이고, 청년 불자의 감소에 따른 위기의식이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는 이 시대의 예언은 대학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불교계도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다.

청년의 감소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그렇다고 청년 불자, 청년 출가자의 감소 역시 대세라고 순응하고 마는 것은 수긍하기가 쉽지 않다. 20년 동안 초저출산, 그리고 인구의 노령화, 거기에 코로나19까지도 엎친 데 덮치는 악재이기에 불교계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 간단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 불교사를 살펴보면 조선 전기에서 중기까지가 최악의 위기라고 말해야 할 그런 시대였다. 청년 승려만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승려'라는 신분 자체의 유지가 쉽지 않았던 시대가 성종부터 선조 때까지의 120여 년이었다. 불교의 명맥이 끊어질 것 같은 그 절망의 시기를 당시의 스님들은 어렵지만 극복해냈다.

사찰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었다. 사찰의 유지 전승을 위한 갑계(甲契)의 결성이나, 이전 시대와는 다른 사찰연기설화의 유포나 불교가사를 통한 전법 활동의 확대 역시 사찰과 승가의 유지와 전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새로운 포교방식이었다.

서산 대사 이후의 조선 승가는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경제력의 대부분을 사찰의 유지보수와 승려교육이라는 두 부문에 집중 투자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산 대사를 기점으로 약 100년 동안 조선불교는 승가교육을 위한 공부 체계를 재정비하였고, 그것이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출중한 승려를 배출하는 연결통로가 되었다.

조선 후기의 피폐함과 국권상실기의 암울한 현실을 뚫고서 다시 한번 불교 재도약을 이끌어낸 면면한 힘은 결국 승가와 사원의 새로운 경제적 활로 모색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승가교육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안간힘과 새로운 활로에 대한 끊임없는 모색은 조선시대에서 불교가 명맥을 끊어질 수도 있었던 위기를 견뎌내게 하는 새로운 힘이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모색하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승가교육의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했다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다.

출가자이든 재가자이든, 젊은 불자를 키우는 것의 핵심은 교육이다. 교육이 미래 세대를 키우는 것이고, 미래세대를 제대로 교육하는 것이야말로 불교의 미래를 보증하는 핵심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에 대한 우리 불교계의 노력은 아직도 절실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교육 일선에 있는 불자의 한 명으로서 젊은 불자 교육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절실하게 여겨지는 이 맘때이다.



김형중의 **붓다설법학**

사성제 교법으로 설법하라

구도자 싯다르타가 '네 가지 괴로움을 없애는 지혜(사성제)'를 깨달아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중생을 위하여 최초로 설법을 하였다. 〈잡아함경〉15와 〈남전 상응부경전〉56에 나오는 '태양의 비유(日喩)'에는 "'사성제'의 진리를 사실대로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깨달음(正覺)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 녹야원에 계시면서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태양이 떠오를 때는 먼저 동쪽 하늘이 밝아지는 징조를 보인다. 그와 같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바르게 보고 이해하는 것도 먼저 깨달음이 있다."

"괴로움을 없애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는 첫째, 현실세계의 존재 자체가 한계적 상황으로 괴로움의 세계라는 사실을 여실하게 아는 진리(고성제)이고, 둘째는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탐욕에 대한 집착(애착)인 것을 밝힌 진리(집성제)이고, 셋째는 애착을 소멸한 것이 괴로움이 소멸하여 마음이 평화로운 열반의 세계임을 밝힌 진리(멸성제)이고, 넷째는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이 여덟 가지 올바른 길(팔정도 · 중도)임을 밝힌 진리(도성제)이다."

불교의 목표는 이고득락(離苦得樂) · 발고여락(拔苦與樂)이다. 나의 괴로움을 해결하여 행복함을 얻는 것이고(초기불교), 나아가 이웃의 괴로움을 없애주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대승불교). 싯다르타가 출가한 동기와 목표는 삶의 '괴로움'과 '괴로움의 해결'이다. 불교의 화두는 '괴로움(苦)'이다.

사성제는 석가모니가 깨달은 진리의 내용으로 불교 교법의 핵심이다. 사성제에서 밝힌 괴로움에 대하여 인과로 설명하는 논리구조가 연기법이다. 법사는 사성제를 중심으로 설법해야 한다. 초기불교경전인 〈맛지마 니까야〉의 '코끼리 발자국의 비유'에는 "모든 동물의 발자국은 다 코끼리 발자국 안에 들어온다. 그와 같이 불교의 모든 교법이 사성제에 포함된다"고 설하고 있다.

법사는 불교의 기본교설인 사성제, 팔정도, 중도, 연기법, 삼법인 등을 먼저 숙지하고 설법을 해야 한다. 기본 교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대승경전이나 선종의 조사어록을 설법할 수가 없다. 끊임없는 경전 연구와 교리를 공부를 하는 것이 법사의 생명이다.

부처님께서 초전설법에서 설한 근본불교 교설에 어긋나는 설법은 불법이 아니고 이단이다. 법사는 설법할 때 현실적인 삶의 고통과 갈등 문제를 절대자인 신의 형이상학적인 권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교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처방과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보조국사 지눌이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딛고 일어나야 한다"고 하였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생긴 괴로움과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냉철한 이성으로 현실을 직시하여 관찰하고, 항상 내 마음을 성찰하여 지혜를 얻는 불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초기불교의 수행법인 위빠사나(관찰과 성찰, 알아차림)의 수행법이다. 불교가 신통력과 기적을 자랑하는 신비주의나 허공의 꽃을 쫓아다니는 비현실적인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

〈前 동대부여고 교장〉

社 說

선지식 가르침 계승 · 발전해야

"공부하다 죽어라. 공부하다 죽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수지맞는 일이 된다." 봉암사 결사의 주역 중 한명인 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 대종사(1920~2001)가 남긴 유명한 사자후다. 오로지 대오견성을 위해 죽을 각오로 공부하라는 선지식의 당부이자 경책일 것이다.

올해 탄신 100주년을 맞은 혜암 스님을 선양하는 행사들이 9월 중 잇달아 열린다. 가장 먼저 열린 행사는 9월 5일~6일 개최됐던 '제10대 조계종 종정 혜암 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다.

이날 국제학술대회에는 40여 명의 국내외 학자들이 참석해 혜암 스님의 가르침을 통한 한국불교 세계화 방안을 살펴보는 11편의 논문과 24편의 논평이 발표됐다.

참석 학자들은 "조사선 전통을 계승한 '혜암선'은 한류불교의 모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공부하다 죽어라'라는 혜암 스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목표지향적인 현대사회에 일침을 놓는 경책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의 가르침은 목표가 목적이 되어버린 우리에게 새롭게 삶을 볼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들은 그만큼 철저히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자세로 혜암 스님이 살아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한 혜암 스님은 평생을 수행 정진하며 살았지만, 종단의 위기 상황에서는 분연히 일어나 산문 밖으로 나왔다. 이판과 사판의 경계를 두지 않은 선승의 모습에서는 종헌종법과 율장의 화합 정신을 그대로 보여준다.

선지식을 선양하는 행사들은 최근 많이 열린다. 중요한 것은 선지식들의 사상과 가르침을 후학들이 계승 · 발전시켜야 한다. 부처님 법대로 살며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선양이자 계승이다.

'코로나 블루' 극복 마음모으자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 확진에 이은 사망과 같은 물리적인 상처 뿐만이 아니다.

코로나 확산 사태의 책임공방, 그리고 확산 후 경제위기로 인한 갈등 촉발과 이념갈등까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상처는 깊어만 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우울증을 우리는 '코로나 블루'라고 칭한다. 하지만 진정한 코로나 블루는 사회갈등 증폭에 따른 공동체의 훼손에 기인한 개인들의 실망감이 아닐까.

9월 21일 세계평화의날을 맞아 열리는 '2020 Be the peace'(이하 비더피스)는 진정한 코로나 블루 치유의 기폭제가 될 것이란 기대를 모으게 한다. 평화란 무엇일까. 사회 갈등이 잦아들고 모두가 평안한 상태가 바로 평화가 아닐까.

코로나가 창궐했던 4월과 5월 우리나라는 의료진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쳤다. 개개인이 방역에 참여하고 의료진들을 응원했다. 그로부터 4개월, 이젠 의료정책 문제로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비더피스 명상대회에서는 모두가 마스크와 하얀 옷을 착용한다.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에 대한 표시다. 하나로 마음을 모으는 것 만큼 지금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까.

하나된 마음은 어떠한 난관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된다. 명상대회를 통해 수행하는 이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이들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이제 우리 사회는 갈등 치유라는 진정한 코로나 극복으로 나아가야 한다. 백신, 치료제 개발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비더피스 사람들의 꾸준한 마음모으기 사업을 응원하며 이번 2020비더피스에 대한 많은 불자들의 활발발한 참여를 당부드린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제8회 묘엄불교문화상 후보공모

고(故) 세주 묘엄 명사스님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묘엄불교문화재단에서는 불교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 표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공모기간 2020년 9월 9일(수) ~ 10월 20일(화)

시상내역 2명(또는 단체), 각 상장 및 1천만원 상금

추천자격 및 선정기준
1. 불교교육, 포교, 수행, 불교학술, 불교예술 등의 분야에서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의미 있고, 뛰어난 활동을 다년간 지속해온 결과, 불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로서, 그 활동으로 인해 최근 5년간 다른 기관(재단)으로부터 수상한적이 없는 후보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2. 단체는 설립된 지 5년 이상이고, 회원 30명 이상인 곳이어야 하며, 근거자료와 함께 그 동안의 활동업적이 첨부돼야 한다.

접수 및 문의
• 접수방법 : 직접접수 및 우편접수
• 접수양식 : 묘엄불교문화재단 카페에서 다운로드(http: // cafe.daum.net/myoeom.org)
• 접 수 처 : 49315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하단동) 동아대학교 인문대학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 윤종갑 교수
• 문 의 : 사무국장 윤종갑 교수 010-2314-2722 greencw@hanmail.net
※자세한 사항은 묘엄불교문화재단 카페 참조

수상자 발표
• 개별통지 후 재단 카페에 공지
• 시 상 식 : 2020년 12월 20일(일) 오전 10시 수원 봉녕사 대법당 세주 묘엄 스님 제9주기 추모다례재일

재단법인 묘엄불교문화재단 사무국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
『한마음연구』 제5집 발행

『한마음연구』는 대행선 및 불교 관련 연구자들의 학술적 성과물을 담아
대행선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전문 불교학술 논문집이다.

● 『한마음 연구』 RISS 검색 서비스 지원
● 발행 주기 - 연2회(2월 28일, 8월 31일)
● 투고 분야
- 한마음선원 및 대행선사와 관련한 주제
- 선학 또는 불교학과 관련한 주제
● 투고 자격
- 박사과정이상의 선학, 불교학과 또는 관련된 인문학, 이학, 공학, 의학 등 분야의 전문가
● 투고 시기
- 연중 접수(6월 30일, 12월 31일 마감)
● 문의처
- 주소 :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대행선연구원
- 전화 : 031) 470-3277
- E-mail : ds7788@hanmaum.org
- 홈페이지 : www.daehaeng.org

